**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4차,
유아기 이야기, 2부, 탄생 이야기, 요한과 예수, 루가복음 1:57-80**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여기는 댄 다코 박사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유아 이야기, 2부, 탄생 이야기, 요한과 예수, 루가 복음 1:57-80입니다.

루가 복음에 대한 Biblica e-learning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세 강의에서 우리는 이 책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두 강의는 실제로 배경 자료,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저자 수혜자 문제를 살펴보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문학 예술성을 살펴봅니다. 이 강의 바로 앞의 세 번째 강의 시리즈에서 우리는 유아기 서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선포에 대한 루크의 설명. 저는 루크가 하는 일과 마태가 하는 일을 비교했습니다. 사실, 이 두 복음서가 유아기 이야기에 매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두 복음서 모두 첫 두 장을 유아기 이야기에 할애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 특정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매우 흥미로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여성이 임신을 했지만, 다른 여성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다른 여성을 방문했고, 임신 6개월째인 다른 여성이 약간의 경험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경험은 너무나 극적이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유대의 산간 지방에 사는 친척을 방문했을 때의 자세한 신학적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이 네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이 두 핵심 인물, 즉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그들의 탄생을 둘러싼 상황과 세상이 이 두 주요 인물의 탄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리즈의 초반 부분에서 저는 세례자 요한의 역할과 히브리 전통에서 메시아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때까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고,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선구자, 원한다면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누가의 기록에서 그 인물로 묘사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기 전에 그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가 이러한 다양한 인물에 두는 강조점, 성령의 역사와 관련하여 가져온 메아리, 예언적 전통과 심지어 세례자 요한의 예언적 역할과 관련된 메아리. 그러니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텍스트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이 탄생 경험, 즉 세례자 요한의 탄생 경험이 실제로는 동네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제 고향 가나로 함께 여행하는 친구들에게 종종 우리가 집단주의 문화에서 하는 일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임신했지만 임신하기 전에 그녀와 그녀의 남편, 그녀의 남편은 사제였는데, 그 문화에서 중요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친구와 친척들이 이 사람들을 상당히 고귀한 사람들로 알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엘리자베스가 불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난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으며, 아마도 그녀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루크가 분명히 그들이 의롭고, 비난할 것이 없으며, 유령의 벌을 받고 있다고 비난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는 상당히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57절에서 누가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고, 이웃과 친척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덟째 날에 그들은 그 아이를 할례하러 왔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부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 요한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척 중 아무도 이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손짓을 하여 그가 무엇이라고 불리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쓰여진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사람 사이에 소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신을 찬양하며.

그리고 두려움이 그들의 모든 이웃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대의 산간 지방 전역에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마음에 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시나리오지만, 친척들이 관심을 갖고 이에 참여한다는 전체적인 아이디어로 돌아가 봅시다.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지 않았다면, 이웃의 아내가 임신했다면, 그녀는 출산할 텐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녀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참여해요. 그녀는 출산할 거고, 집에서 출산할 거예요.

집에서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 아프리카 국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 그리고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여전히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자베스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을 때 그녀는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남편에게서 아무 말도 듣기도 전에, 그녀가 요점을 전달하기도 전에, 사회는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야 할지 결정하고 싶어합니다.

당신의 문화가 집단주의 문화가 아니라면 이러한 문화적 참여는 중요합니다. 집단주의 커뮤니티는 함께 일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원합니다.

존은 수혜자가 될 것이고, 존의 부모님은 지역 사회 전체가 그들의 기쁨을 축하한다는 사실을 즐길 것입니다. 이름이 정해지고 엘리자베스가 존이라는 이름을 지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는 사회의 나머지 또는 이웃들이 그것이 좋은 이름인지 확신하지 못해서 매우 화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이유는 그들의 가족 중에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에게 존이라는 이름을 주었을까요? 사실, 존은 일부 학자들이 그 단어의 번역이 법의 호의를 받은 사람을 암시한다고 설명하기도 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가족 중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살고 있다면, 고대 세계의 문화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잠시 멈추고 곁길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 중 특정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지는데, 특히 고귀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매우 저명한 사람인 경우, 특히 첫 번째 자녀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어지는 것이 이상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어지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이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이름을 받거나, 그 사람의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것을 암시하는 사람들의 언어에서 따온 이름을 가질 것입니다. 존의 경우, 이웃들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인 두 번째 이유는 사가랴라는 이름을 선택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존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그것을 언급했을 때,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어서 태블릿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확히 그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루크는 주변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합니다. 루크가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암시는 그 이름이 무엇일지 논의하기 위해 비밀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종류의 확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루크는 또한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아는 것을 모른다는 인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제안한 이름은 완전히 표준에서 벗어났으며, 사가랴 자신이 제기하고 기록할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제 독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준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가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서, 오, 제 아내가 이 이름을 지어냈어요. 좋은 이름일 거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 아내가 말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루크는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 될지에 대한 증인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비밀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종류의 확증이 없었는지 묻고, 이름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누가는 또한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아는 것을 모른다는 인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제안한 이름은 완전히 표준에서 벗어났고, 사가랴 자신이 제기하고 기록할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제, 독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준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가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서, 오, 제 아내가 이 이름을 지어냈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이름일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니, 루크는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 될지까지 여러 증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확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갑자기 사가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지어지고 그에게 주어진 예언적 약속의 모든 부분이 성취되자마자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기쁨을 터뜨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는지 상상해보세요. 누가는 누가답게 스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언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에게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의 삶에 관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성령은 유대교 전통에서 나타났고 성령은 관여했지만 그 정도의 빈도는 아니었습니다.

원한다면 루크를 카리스마 있는 루크라고 부르세요. 다만 그가 성령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그가 어떤 특정 교파적 소속과 강조를 고집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요. 아니요. 루크는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80절, 1장의 마지막 구절에 도달했을 때 지적하겠지만, 누가는 또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 것인지도 말해줄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는 누가의 담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아 이야기는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를 따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관한 이 특정 기록에서 몇 가지, 그 중 다섯 가지를 강조하여 누가가 그의 서사 기록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그에게 당신의 아내가 임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천사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사실 그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나리오였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을 압니다.

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의 성별을 알 수 있도록 초음파 검사와 모든 스캐닝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불쌍한 제카리야를 기다리는 긴 9개월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아들이 될지 아닐지? 네, 천사가 그녀가 임신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여자아이로 밝혀진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누가의 담론에서 약속과 성취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누가는 그녀가 당신이 임신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는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가 1장 14절에서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우리는 물론 친척과 이웃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기뻐했다고 들었습니다.

천사는 또한 그의 이름이 요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크는 여러 증인이 있는 이 복잡한 시나리오에서 그의 이름이 요한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가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요한은 그들이 아는 가문의 이름이 아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계시하실 것이고, 동시에 사가랴가 그것을 확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와우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누가가 그들이 유대의 산간 지방 전역에 소식을 퍼뜨릴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펼쳐진 것이 장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 아이의 운명에 대해 가정하기 시작했고, 이 아이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하실지 보게 될 것입니다. 약속 과 성취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은 벙어리였던 사가랴가 20절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4절에서 이름을 말하자마자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가 여기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잠깐 멈추어 생각해보면 본문을 읽는 것이 상쾌해집니다.

그러니, 그 중 일부를 해봅시다. 67절에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들 요한의 이름을 지은 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에서 그는 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가 그의 백성에게 와서 그들을 구속하셨으므로 그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고 그의 종 다윗의 집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옛날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을 베푸소서. 그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출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그 앞에서 종일 그를 섬길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 나의 아이, 아마도 그의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는 아이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나의 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가 될 것입니다 . 왜냐하면 당신은 주님보다 앞서 나아가 그를 위한 길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에게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의 지식을 주시기 위함이니, 하늘에서 떠오르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사는 자들을 비추어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본문에서 언급한 초기 참조 중 일부를 잠깐 골라 보겠습니다. 영이 사가랴에게 임했고, 영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사가랴는 구속자,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신 분의 오심을 알렸습니다. 그는 구원의 뿔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고대 근동의 언어입니다. 뿔은 힘, 권능, 위력의 상징이거나 때로는 은유입니다.

며칠 안에 와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그는 그의 백성을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는 원수들을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여기에는 엑소더스 모티브가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와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보이셨고, 그는 우리 조상들을 위한 자비를 언급하지만, 그는 또한 구원에서 그의 자비를 보이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과 맺은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 근거로 그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구출할 때, 그는 그들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능력, 능력,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가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는 메시아가 우리 세상에 오는 모든 일이 제2성전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의 성취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와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사가랴는 요한이 구원을 행할 사람이 아니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행할 사람보다 앞서 올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 사람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루크는 요한에 대한 세션을 마치며 우리에게 생김새에 대한 감각을 제공합니다. 원한다면, 어떤 것들은 요한에 대한 기본적인 전기입니다.

그는 존이 성장했고, 정신적으로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강한 의지를 가졌지만, 반항의 의미로 강한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강한 의지를 쓰는 것처럼 강한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적으로, 태도적으로, 성격적으로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동안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택했습니다. 요한이 채택할 나사렛인의 서원과 나사렛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천사의 메시지를 읽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광야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여기의 광야 모티브가 매우 중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광야는 유대인 역사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곳입니다.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조차도 광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돌아다녀야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고, 하나님이 그들을 형성하고 틀에 넣어 부르시는 것을 위해 준비시켜야 하는 곳입니다.

존은 상당한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가 실제로 광야에서 나왔다고 말하면서, 그는 그저 광야를 떠나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광야에서 공적 사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유아기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아차릴 것 중 하나는 마태와 달리 누가의 경우 세례자 요한의 사역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의 탄생과 이 모든 사건과 그에 대한 예언적 발언이 전개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요한의 사역은 예수의 사역이 시작될 곳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2장으로 넘어가면서, 누가가 이미 이 유아에 대해 뭔가를 말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웃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가복음 3장에서 다시 등장할 때, 우리는 그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역에서 더 많이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첫 번째 폴더가 요한에게 닫혔습니다.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그리고 여관에는 그를 위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구유에 뉘었습니다. 이 기록에서 몇 가지 사항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여기서 접선 지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숙박 문제나 주택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세상에서 그의 첫 번째 문제는 주택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학생이라면, 룸메이트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그의 첫 룸메이트가 양이었기 때문에 그의 침대는 구유였습니다.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세요. 룸메이트가 와서 당신을 응시하며 말합니다... 보세요, 누가가 묘사하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 예수가 오신 것은 왕, 왕, 주님,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엘리트인 루크는 엘리트인 테오필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며, 이것이 엄청난 일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가기 위해 가장 겸손하고 평범한 방식으로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부르던 노래를 기억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맥락에서 우리가 가난에 둘러싸여 잠겨 있을 때, 그가 내려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지위만 낮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우리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는 명예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머리 둘 곳도 없는 자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거처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에서 오셨지만 양들 사이에서 구유에 첫 번째 침대를 두셨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누가가 어떻게 이 사건을 역사 속에 확립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시대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 나중에 언급할 시리아 총독으로서의 퀴리니우스의 통치를 보여주는 사건을 확립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면 누가복음에서 다윗의 도시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와 달리 다윗의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다윗의 도시는 베들레헴입니다. 에브라다입니다.

다비드가 자란 곳이기도 하지만, 그가 통치했던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로마 정치와 시대적 틀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있습니다. 저는 웹사이트에서 이 자료를 빌려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끌던 시대적 틀을 실제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율리우스에게 입양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기간을 살펴보면 그는 기원전 27년에서 기원전 14년 사이에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총독이었을 때 인구 조사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 사건을 올바른 역사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기원전 4~3년 사이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실제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될 시기와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퀴리니우스의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잠깐 타임라인을 알려드리고, 이 텍스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탄생 배경.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낼 인구 조사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우리는 요셉이 다윗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계통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입니다. 누가는 사실 베들레헴이 그저 평범한 도시나 마을이 아니라고 재빨리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다윗의 도시에 대한 구약의 언급과는 달리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반면, 여기서 다윗의 도시는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은 미가 5장 2절에 따르면 베들레헴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초기 교회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언급될 분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는 마구간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4~4.5마일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나사렛에서 약 80~90마일 떨어진 곳에서요. 그는 제가 앞서 언급한 십 대 소녀에게서 태어날 것입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약 13세였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그녀의 삶에 있을 남자를 주목하세요. 그 남자 조셉은 아직 결혼을 성사시킨 상황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원한다면,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아기 소년을 낳았습니다. 마태는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에 있는 동안 아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천사의 말을 똑똑히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아이는 장애물이야. 어차피 우리 결혼 생활에 방해가 돼."라고 말하는 대신 말입니다.

그는 내 아이가 아니야. 이 아이를 죽여라. 아니, 요셉이 말할 거야. 나는 마태오의 계좌에 보류 상태로 나사렛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그는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갈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에 도착하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집트 친구들과 농담을 하면서, 나는 마리아와 요셉의 흔적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보게 되는데, 그들이 실제로 거기에 있었는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관광객을 들뜨게 할 수 있는 매우, 매우 수익성 있는 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이 카이로에 있다면, 100마일 이내에서, 저는 100마일이라고 말합니다, 100미터 또는 100피트에서, 여러분은 그들이 머물렀을 3~4개의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여기 서서 아기 예수와 어머니가 있었던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누가가 우리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데려가서 요셉과 요셉에서 듣지 못할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반면, 마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더 나은 부부를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매우 독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었다. 천사가 그에게 아이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말할 것이고,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동안 그에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렇게 많은 세부 사항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서사적 초점은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방식에서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합니다 . 누가에게 있어서 우리는 역사의 시간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아무 데서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아무 데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특정한 시간에 우리 세상에 옵니다. 그것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왕좌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 본토에서 종교적 전통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것은 위대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본토와 그들의 종교적 관습에 대한 외국의 영향에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것도 이때였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매우 종교적으로 독실할 것이라는 말도 이때였습니다. 그들은 로마법에도 따라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에 등록할 정도로 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 담론에서 우리는 이 부부가 종교적 법에 헌신하고 이를 주의 깊게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북미, 특히 뉴잉글랜드에서 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미국 다른 지역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곳과 이 지역 전체에서, 어떤 사람들은 날씨가 너무 나빠서 플로리다 어딘가에 멋진 휴가용 주택이 있어서 가서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좋은 삶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있는 곳, 심지어 당신이 내는 세금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년 내내 아주 잘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휴가용 주택이 없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서 정착할 유대에 특별한 재산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가족 주택이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가족 구성원이 나타났는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루칸 서사에서 그 효과를 보여주는 더 많은 포인터나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첫 번째 요람과 첫 번째 룸메이트를 양과 함께 그 자리에 두실 것입니다. 여기 루가에서 루가는 또한 이 겸손한 메시아가 우리 세상에 오는 것에 대해 뭔가를 말해줄 것입니다. 마태는 이라크의 저명한 사람들인 동방박사들에게 탄생을 알릴 것입니다.

여기 루크에서는 데이비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가 목동인 동네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하찮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이 네 가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제시했으니, 이 광범위한 스펙트럼에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좁히고 집중하고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듯이 시간적 틀입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습니다.

해롤드는 기원전에 죽을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해롤드는 그의 불안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는 이 소년의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퀴리니우스가 그 당시 시리아의 총독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시간대는 좋아 보이지만, 세계사에서 우리가 가진 문제는 퀴리니우스와 그의 통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원전 4세기에 퀴리니우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가는 이미 일어난 일을 추측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누가에서 발견되는 이 드문 경우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역사를 특정 인물에게 고정시키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는 여기서 잘못 인용하고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퀴리니우스가 기원전 4년에 시리아의 총독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몇 년 전이나 몇 년 후에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것 같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학자들이 앞뒤로 논의하는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누가가 역사적 사건의 위치를 정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역사적 인물 중 한 명을 거기에 던져서 현대 학자들에게 많은 멈춤과 우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슈트라우스는 인구 조사 자체와 마찬가지로 퀴리니우스에 대한 언급이 역사적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썼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퀴리니우스의 시리아 총독 임기는 서기 6-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유대를 위해 실시된 인구 조사는 서기 6년 또는 서기 6년경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그 인구 조사를 그 시점에 옮겨 적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관점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인구 조사가 그보다 일찍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구 조사는 서기 6년에 끝났습니다. 사실, 제기된 견해는 제가 여기에서 제시한 대로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퀴리니우스가 두 번의 임기 동안 재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시간 프레임을 통해 예수와 이 사건을 어느 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크는 그 관점에 따르면 잘못된 연대를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퀴리니우스가 주지사가 되기 전에 그 지역 어딘가에서 행정직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퀴리니우스는 이미 그 지역에서 행정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가 글을 쓸 당시에는 그가 주지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견해는 내가 앞서 암시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퀴리니우스가 인구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 일하고 있었거나 총독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된 인구 조사였습니다.

여기서의 이 사소한 문제로 인해 누가복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더 광범위한 서사에서 우리를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는 세계 역사의 특정 시기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가게 된 계기는 인구 조사였습니다.

인구 조사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퀴리니우스는 시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게 그가 확립하려고 하는 모든 요점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기 예수에 집중할 것입니다. 크래독은 이 모든 퀴리니우스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가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 팔레스타인에서 인구 조사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5:37에 언급된 것이 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가복음 2:2에 언급된 것보다 나중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퀴리니우스가 그 지역의 총독이었고, 등록과 세금 평가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누가가 역사적 언급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누가의 주된 목적은 예수를 베들레헴에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의 연속선상에서 말입니다. 누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한다면, 그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사에 따르면 이것이 이 일이 일어난 시간대라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당신은 또한 천사들이 누구를 이야기 속으로 데려올 것인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목자들이 될 것입니다. 2장 8절. 그리고 같은 지역에는 밤에 들에서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싸고 빛났으며, 그들은 큰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목자들의 경험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평범한 언급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루가는 버림받은 사람들, 엘리트,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고귀한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복음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그리고 그것은 어른에게도, 어린이에게도 이야기입니다. 루크에게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목자로서 그의 첫 방문객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윗의 혈통에서 오는 사람은 방문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목동이었을까요? 다윗 자신도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 올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양치기 일을 무엇과 비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 중 하나였어요. 더러웠어요.

양을 돌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양은 그다지 착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겸손한 직업과 경력에서 아기 예수는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잠깐 멈추어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자.

그는 우연히 양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첫 번째 귀족 방문객은 목동들이었습니다. 루크는 우리가 목동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온 이 아주 하찮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루크는 그가 당신에게 그런 인상을 주면 당신을 오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가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8절에 나오는 한 지역에서는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 떼를 지키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루가에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처럼요. 그들의 만남은 초자연적인 만남이었고, 그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보라,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오늘 다윗의 성에서 너희를 위해 구주가 태어났으니, 그는 메시아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당신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천사와 함께 많은 천군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천사가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동들은 서로에게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이 일들을 보자." 그리고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이 아이에 관하여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은 목동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간직하며 숙고했다. 그리고 목동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그리고 8일 후, 할례를 받았을 때, 그는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중에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준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천사의 방문은 들판에서 목동들과의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신비로운 인물이 나타나고, 한밤중에 신비로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양들이 잠을 자고 있거나 아무 데도 없는 들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터져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화려하고 특별한 일들을 가져왔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당시 세상에서 초자연적인 활동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우리 세상에 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이제 강의의 이 부분을 끝내기 전에, 때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어떤 집단에서는 큰 문제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러한 언급이나 구절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맏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첫째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뛰어난 아들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마리아가 그 후에 많은 자녀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교파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개신교도들이 가톨릭교도들과 함께 방에서 해석할 때 논쟁이 생길 수 있는 구절 중 하나이며, 한때 가톨릭 학교에서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사제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제로서 성장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개신교도였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특정 대화에 참여하게 되면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마리아가 더 많은 아들을 두었고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누가는 나중에 언급할 요점에 대한 힌트를 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 교파적 주제에 대한 간단한 개요입니다. 마리아 문제와 그가 가톨릭 전통이나 정교회 전통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영원한 처녀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개신교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주현절 관점은 마리아가 복음서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아들을 두었지만 그 아들들은 마리아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헤로 메네우스적 관점은 가톨릭교에서 기울어지는 관점으로, 성서에서 마리아의 자녀나 예수의 형제의 아들에 대한 언급은 그의 사촌에 대한 언급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에피파네스 적 관점과 헤로 메네우스적 관점은 모두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누가가 마리아의 맏아들에 대해 말할 때, 사실 마리아가 그 후에 자녀를 가졌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개신교적 관점은 헤로메네우스적 관점으로,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를 언급하든 당시 방문했던 예수의 형제를 언급하든 ,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 이후에 낳은 자녀, 즉 마리아의 친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리적 논쟁은 다른 것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저는 누가가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가 마리아가 더 많은 자녀를 가졌는지 아닌지에 대해 다투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누가의 요점이 아닙니다.

루크의 요점은 기본적으로 독자에게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성전에 가서 아이를 바쳐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아, 여자, 아이가 먼저 태에서 나왔다면, 더 많은 아이가 생기든 나중에 생기든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에서 먼저 나온 아이는 성전에서 바쳐질 아이여야 합니다.

루크는 요셉과 마리아가 나중에 성전에서 발견되어 아이를 바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탄생 이야기에서 그가 암시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목동과의 만남 측면에서 목동과의 만남은 너무나 주목할 만해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동과의 만남에 대해 약간 흥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이 가브리엘을 만난 것에 대한 다섯 가지를 재빨리 손으로 적어 보세요. 주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밤에 들판에 있는 동안 그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로 빛났습니다. 후광 효과가 그들 주위로 다가오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 천사는 그들에게 표징을 줍니다. 당신은 모든 곳에서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유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그 표징들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아이가 그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천사 무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 합류하여 목자를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밤에 들판에서 콘서트를 열고 천사들이 합창단을 이룬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목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신과 그의 천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자들에게서 멀어져 하늘로 물러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우리는 그들이 이 아기를 어떻게 방문할지 계획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를 따라가고 루크가 무엇을 하는지 따라가면서, 저는 이 특정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은 선구자의 도래를 예고했습니다.

선구자와 그가 어떻게 성장하여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퀴리니우스가 총독이었을 때부터의 구체적인 로마 역사와 지역 역사에 위치시킵니다. 누가는 그가 태어날 겸손한 공간과 부모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여 그 훌륭한 아이가 겸손한 공간에서 태어나게 할 상황을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루크는 귀족의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온 손님들이 태어난 아이에게 말을 건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실 텐데, 심지어 많은 수의 천사를 보내어 4와 2를 가라앉히고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여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방문하게 하실 것입니다. 목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비록 당신이 그와 같은 엘리트이거나 테오필로스와 같은 엘리트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그의 손 안에 두신 하나님께서 유대 전통의 메시아적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해 오시지만, 매우 겸손한 방식으로 오십니다. 그는 매우 평범한 방식으로 오십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그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온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 온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온다.

그리고 여러분이 강의를 따라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 아이가 성전으로 옮겨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나중에 성전으로 옮겨져 헌신을 받을 때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유아기 이야기에서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이 연구를 즐기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에 오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이 기쁨, 평화, 사랑을 갖도록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댄 다코 박사와 그의 루가 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유아 이야기, 2부, 탄생 이야기, 요한과 예수, 루가복음 1:57-80입니다.